

제설 실패...그레이더 투입 생각도 못한 원시적 대책

〈눈 밀고 가는 중장비〉

제설작업 왜 안됐나 했더니...광주시 출근대란 뒷북 대응

민간 70여대 보유...휴일 10대만 투입했어도 제설효과 탁월 염화칼슘 의존하다 뒤늦게 수배...도로공사 신속 대처와 대조

광주시의 제설전략 실패로 25일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20cm 이상의 눈폭탄을 염화칼슘 등 제설제만으로 해결하려는 무모함 탓에 도로 곳곳은 '눈 모래사장'으로 변해 차량이 미끄러지며 교통사고가 빈발했다. 언덕에선 앞 차가 미끄러져 교통을 방해해 출근길 지각사태가 벌어졌고, 시민들은 분만을 터트렸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교통대란은 기록적인 폭설·한파에 따른 천재(天災)라기보다는 광주시의 제설전략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부터 20cm 이상의 눈폭탄이 예고됐는데도 광주시는 제설능력이 뛰어난 그레이더(Grader)를 동원하지 않고 염화칼슘 살포와 삽질 등 예년 수준의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한파를 동반한 폭설로 예년 방식의 제설작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지난 24일 오후 7시부터 건설장비이자 제설 장비인 그레이더를 제설 현장에 투입했다.

최근 사흘 동안 광주시에 25.7cm의 폭설이 내린 데다 기온도 종일 영하권에 맴돌아 염화칼슘 살포와 삽질 등 예년 수준의 제설 대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휴일인 24일 오전 그레이더 기사들을 긴급수배한 끝에 오후 7시가 돼서야 제설현장에 처음으로 한 대를 투입했고, 이어 밤새 수소문한 끝에 3대를 추가 동원했다. 25일 오전에는 자발적으로 그레이더를 몰고 온 중장비 기사들을 포함해 총 10대가 제설작업에 힘을 보태면서 오후부터 도로 사정이 다소 나아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 뒷북대응으로 휴일 제설작업을 놓쳐 월요일 출근대란이 발생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광주시가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그레이더 70여대 중 10대만 휴일에 투입했다하면 출근대란과 교통사고 상당수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레이더는 주로 도로건설 현장에서 노면 평탄화 작업에 쓰이는 중장비이지만, 폭설이 내릴 경우 고속도로 제설에 긴급 투입될 정도로 효과가 탁월한 제설장비로 잘 알려져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보유한 제설차는 화물트럭에 삽날이나 포크가 달려있지만 20cm가 넘는 폭설 앞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반면 그레이더는 15~20t에 달하는 자체 중량과 최대 4.2m에 달하는 삽날로 시간당 10km 구간의 눈을 치워낼 정도다. 특히 지난 23~24일처럼 기온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러도 제설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그레이더 운전기사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장점에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도 폭설이 예보되면 비상연락망으로 그레이더 운전기사들의 지원받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제설작업 현장에 그레이더가 투입된 무진대로와 그렇지 않은 구간(흑석사거리~광주여대)을 비교하면 차량 이동속도 등 도로사정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 무진대로 1km를 가는데 5분이 걸리지 않는데 반해 흑석사거리에서 광주여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를 가는 동안 30분 이상 걸린 것이다.

그레이더 운전기사 장모(49)씨와 정모(45)씨는 "내린 눈의 양과 기온은 기록적인데 제설작업은 예년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설작업 실패에 따른 교통사고, 차량정체, 물류운송 차질, 출퇴근 지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레이더 1대 사용료가 하루 15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광주시의 대응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와 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모두 열심히 했지만 6~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한파여서 역부족이었다"면서 "이번 일을 기회 삼아 그레이더 운전기사들과 연락망도 강화하는 등 기존 제설대책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5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염화칼슘 살포 등 기존 방식의 제설작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긴급 투입된 그레이더가 도로에 쌓인 눈을 힘차게 밀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5일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내린 화순군 화순읍 영남리의 한 축사에서 젓소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랭 질환자 급증

광주·전남 30명...순천서 저체온증 사망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지난 22일 순천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한랭 질환자들이 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접수된 한랭 질환자는 광주 9명, 전남 21명 등 모두 30명(저체온증 28명, 동상 2명)이다.

광주에서는 강추위가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6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전국적으로는 17~20일 사이 55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지난 10~16일의 24명과 비교하면 2.3배 늘어난 수치다.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전국 응급실 530곳에서 한랭 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2013~2014년(12~2월) 17명(1명 사망), 2014~2015년 34명(2명 사망)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고, 광주에서는 같은 기간 각각 2명과 5명의 한랭 질환자가 나타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뇌물수수 국립대 전 간부 구속기소

직원 채용과 물품납품 편의 제공을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쟁건 지역 국립대 전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직원 채용과 물품납품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목포해양대학교 전 총무과장 A(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B(여·59)씨와 물품 납품업자 C(57)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해당 학교의 계약직 직원인 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물품납품업자 C씨로부터 물품납품 편의 제공을 조건으로 197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각각 두차례씩 총 네차례에 걸쳐 3470만원을 받아 쟁건 혐의다. /목포=김병민기자 dss6116@

장성 29cm 눈 폭탄...전남 곳곳 비닐하우스·축사 붕괴

빙판길 도로 교통사고 잇따라

광주 620개교 하룻동안 휴업

장성에 최고 29cm의 눈 폭탄이 쏟아지는 등 광주·전남지역에 사흘째 이어진 폭설과 한파로 비닐하우스 붕괴와 교통사고 등 피해가 속출했다. 또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620개교가 25일 하루 동안 휴업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장성군 남면·황룡면·북하면 비닐하우스 11개 동(6925㎡)이 주저앉았고, 같은 날 영광군 군남면에서는 하우스 1개 동(1980㎡)이 파손돼 토마토가 피해를 입었다.

화순과 영광, 함평에서는 축사 3개 동(860㎡)이 무너지거나 붕괴 위험에 처해 젓소와 돼지 등 가축 70여마리가 대피하기도 했다.

폭설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교통 사고도 잇따랐다.

25일 새벽 2시36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1t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24일 오후 2시32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고서분기점 7km 지점에서는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경상을 입었고, 같은 날 정오께는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도로에서 SUV차량이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또 낮 12시40분께 화순군 북면 백야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는 폭설로 도로가 결빙돼 차량 5대가 고립됐다가 긴급 제설작업으로 21명이 구조됐다.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께는 광주시 북구 삼각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1t 화물차량을 밀던 60대 남성이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반면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여수에서는 산불이 발생했다. 25일 낮 12시50분께 여수시 화강동 무선산에서 난 불은 임야 0.3haha를 태우고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부터 광주에서는 낙상 36건, 교통사고 14건, 계랑기 동파 4건이 접수됐고, 전남에서는 낙상 61건, 교통사고 62건, 계랑기 동파 6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추위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전력 수요도 크게 높아졌다.

25일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순간 최대부하(전력사용량)가 5300MWh대를 기록했다. 이는 이번 겨울 들어 최고치인 지난 8일 오전 9시께 5668MWh보다는 낮지만 평상시보다 300~400MWh 이상 높은 수치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내린 눈은 장성 29cm를 최고로, 무안(해제) 28cm, 광주 25.7cm, 함평 25.5cm, 목포·나주 25cm, 영광 21cm, 진도 20.5cm, 강진 15.5cm, 장흥 15cm를 기록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들 건강 나빠" 부친 묘 훼손 딸 징역



○"아버지의 묘지 위치 때문에 자신의 아들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아버지의 묘지를 훼손한 60대 딸에게 징역유예.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아버지의 묘지를 훼손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로 기소된 김모(여·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징역유예 1년을 선고.

○재판부는 "아버지의 묘지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이복오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지를 파고 유골을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망인을 위한 제사를 지낸 뒤 묘를 파고, 유골을 인근 사찰에 봉안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7층 상가건물매매

- ▶ 1층 (커피숍)
- ▶ 2층~5층 (사우나, 주택)
- ▶ 6층~7층 (설계사, 건축사)

※ 은행대비 최고 안정적 상가건물

※ 공실 없음 / 울시설 / 월세 책임보장

☆ 월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1억5천/ 용6억)

매가 16억

(7층상가건물, 사우나,커피숍 직영가능하므로 수익률 상승)

※주인 직매 010-6670-9800 / 010-7384-7800

신축상가 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보 5,000만 월 500만 ☆ (용1억2천)

매가 6억 8천만

※ 상가겸 원룸건물이므로 장래 값어치 상승 확실히 있음

010-6834-4800 010-6832-9700